동사무소 전직원 장기기증·화장서약

대전 태평2동 "죽은후에도 주민 봉사"
"종교 떠나 좋은일"…기독교인도 동참

한 동사무소의 16명 직원 모두가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해 화제다. 더욱이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서로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는 종교가 따로 없다"고 외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대전 중구 태평2동 동사무소(동장 장완순)의 동장을 비롯한 직원 16명은 8월 28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에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대한 서약서와 함께 짧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죽어서라도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각오로 장기기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두 달여 전. 장완순 동장이 게시판에서 우연히 생명나눔실천회 포스터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장 동장은 '우리 식구들이 다함께 장기기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즉시 생명나눔실천회에 기증 신청서 20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막상 직원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니 일방적인 강요같기도 하고, 또 불교 6명, 개신교 2명, 천주교 2명, 무교 6명 등 직원마다 종교가 달라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었다. 몇 차례 고민끝에 장동장은 이것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고 직원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꺼냈다. 그러나 직원 4명이 망설이며 찬성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동장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동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여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망설였던 직원들도 모두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불교신자인 박은영(30·주민등록 담당)씨는 "평소 등사무소 직원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불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동장님과 여러 동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평소 신장결석과 장출혈로 병원신세를 많이 지면서 수혈해 준 고마운 분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이 기회에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동참했습니다." 개신교인이라는 오갑주(44·총무담당)씨는 생명나눔실천회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단체란 걸 이번에 알았다며 뜻깊은 일을 하는 데 종교가 다른게 무슨 상관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장기기증·화장서약을 함께한 대전 태평2동 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직원들이 마음을 합쳐 장기기증에 나서게 한 일등공신은 장완순 동장이다. '한 번 공무원은 죽어서도 공무원'이라는 소신을 꺾어본 적이 없었다. 장기기증과 화장에 대한 소신 역시 마찬가지다.

"화장은 불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장기기증과 화장은 종교를 떠나 생명을 나누고 국토를 아름답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관음사불교대 야간반 개설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중원)는 오는 10월부터 1년과정의 제주불교문화대학 야간반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동안 열리는 교육학기는 신앙입문기(10월~12월) 신행수학기(1월~3월) 신행연수기(4월~6월) 정법회향기(7월~9월)로 나눠 강좌가 이루어진다. (064)702-2828

태권도공원 유치 기원법회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8월29일 스님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태권도공원 보은 유치를 위한 21일간의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운천사 대웅전 상량법회

전남 종무원사가 있는 운천사 대웅전 상량법회가 금명 전남종무원장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8월 28일 봉행됐다. 건평 25평인 대웅전은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4호 마애여래좌상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면 3칸 후면 2칸 맞배지붕 형태로 지어지게 된다.

강원교구 중국 성지순례

강원종무원(원장 백운)산하 스님과 교임 25명은 8월 31일부터 9월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불교성지순례를 가졌다. 정기 연수교육을 대신해 마련된 이번 성지순례에서 스님들은 북경의 광제사를 비롯 공자묘, 만리장성, 천안문 등 중국 문화유적을 돌아보았다.

천태종

진부 진강사 법당 낙성식

진부 진강사(주지 갈용)는 18일 오전 10시 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번 낙성법회에는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33)335-7376

진각종

경주 밀교교리대법회

제3회 밀교교리대법회가 30일 오후 2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법사는 혜정 종학연구실장이며 법회의 주제는 '생활의 참지혜를 깨닫는 법'.

관음종

성직자수련 12월 개최

8월 25일 인천 흥륜사에서 종단 현안에 대한 확대 종무회의가 열렸다. 종정 혜웅스님,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계성직자수련회를 오는 12월 5~7일 천안 보명사에서 열기로 했다.

일승종

묘종스님 종정추대

8월 24월 재적 종회의원 23명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차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범호 종정 후임으로 법공 묘종스님을 9대 종정에 추대했다. 또한 혜정 총무원장 후임으로 전 종회의장 혜덕스님(사진)을 제12대 총무원장에 선출했다.

조동종

은적사 미륵불 점안법회

경남 사천 은적사(주지 법광)는 8월 20일 미륵부처님 점안 및 천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지명스님을 비롯 학봉 총무원장 등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했다.

불자 호스피스·간병교육 열기

불교복지보건대 · 범어사 · 정토사 강좌 잇따라

◇불교복지보건대학 수료 사진.

부산·경남 불교계에 호스피스·간병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은 호스피스 간병 교육열풍은 타 종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불자 호스피스 인력의 충당과 질 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99년 4월 불교계 최초로 보건과 복지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던 불교복지보건대학(051-462-5670)이 간병과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데 이어 8월 28~31일 범어사 부산포교원(051-853-5486)도 부산재가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4일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울산 정토사(052-258-9944)는 5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제1기 전문간병인 교육을 개강하고, 미룡사(051-404-4300)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간병과정 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스피스·간병 교육의 공통점은 각 병원과 학교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진들의 교육과 실습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교육기간을 수료한 이들의 활동폭도 다양하다. 8월 31일 4기 불심호스피스 간병과정 수료식을 가진 불교복지보건대학은 현재까지 배출된 2백 여명의 졸업생들이 동인병원, 부산의료원, 효도병원 등에서 불자 간병인들의 활동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수료식을 가진 범어사부산포교원의 호스피스 과정에서는 115명의 불자 호스피스 인력이 탄생해 호스피스 인력을 필요로 하는 병원, 가정 등에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불교복지보건대학이 9월 26일 5기 불심호스피스 간병 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정토사 9월 5일, 범어사부산포교원과 미룡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간병과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미륵사지옆 아파트 '말썽'

주민들 "경관 훼손 · 용수 고갈" 건설 반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소재한 국가사적 150호인 미륵사지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난(亂)개발로 인한 주변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8월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모 건설업체가 미륵사지 인근 지역의 미륵산 자락에 5층짜리 아파트 9채, 336가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요청,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취락지구개발계획 등을 승인 받고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부지는 백제불교 최대의 유적지인 미륵사지에서 불과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지역에 군부대의 사격장이 위치해 공동주택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국내는 물론 일본 등지의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미륵사지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미륵산의 경관과 풍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 지역 주민들도 이곳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관정개발이 불가피해 인근의 생활, 농업용수의 고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독실한 불자 산사태 복구중 순직

군산시청 유화종씨

8월 26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복구작업에 나섰다가 갑자기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진 전북 군산시청 도로관리계장 유화종(48)씨가 불심돈독한 불자임이 알려지면서 지역불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인은 군산 내원암 신도로 올해 전주에 있는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에 입학해 바쁜 업무중에서도 군산에서 전주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하며 불교교리 공부에 매달려왔다. 게다가 업무상 사정으로 수업을 빠지게 되면 강의를 녹음한 테잎을 구입해 공부하는 등 열의가 대단했다. 고인은 3대 독자로 두 딸 유경(6)과 유진(3)양을 남겨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명우 기자

단양 온달축제때 연등제

오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단양읍과 온달산성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5회 단양 온달문화축제 첫날 부대행사로 선착장앞 남한강에서 소원기원 연등제가 열린다.

이날 전국의 불자들이 참석해 무병장수 등 다양한 소망이 실린 연등을 띄워 장관을 연출한다. 천태종 본산 구인사와 단양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바라춤과 승무, 소원기원 염불제도 열려 불교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단양 온달문화축제는 연등제를 비롯해 민속공연, 마당극, 무예시연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043)420-3545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사진 게재
中 클린턴 화보집 압수

중국 세관당국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화보집 가운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클린턴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을 문제삼아 화보집 1만6천부를 압수했다고 화보집 출판에 관여했던 한 업체가 8월28일 주장했다.

〈클린턴 집권기(The Clinton Years)〉라는 제목의 이 화보집은 지난 92-98년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진사였던 로버트 맥닐리가 찍은 흑백사진 2백여장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4년 4월28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가 악수하는 사진이 한 장 포함돼 있다. 김재경 기자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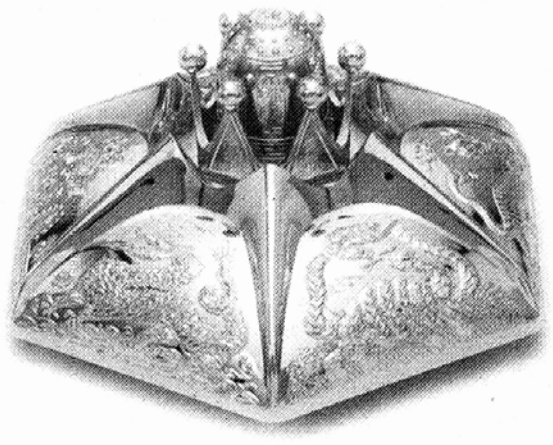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사용처◆ ※모든 불자님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구 입 처◆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